

조선시대 포를 응용한 여아 외투 디자인 I

신자영 · 장민정⁺*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부교수⁺*

Design of Girl's Coat Applied with Overcoat of Chosun Dynasty I

Ja-Young Shin · Min-Jung Chang⁺*

Doctoral Course, Dept. of Clothi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Associate Prof., Dept. of Clothi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2016. 7. 11 접수; 2016. 9. 29 수정; 2016. 10. 6 채택)

Abstract

Though the po as the basic apparel of the Joseon Dynasty period was various in kind as it was worn by people of different times, places, duties and statuses, it was unified as *Juui* with apparel reform at the late Joseon Dynasty. Though people of today have good feelings about hanbok, they rarely wear it because of its uncomfortable wearing sensation and the fastidious care after its use. However, efforts should be made to develop designs and to improve its use convenience through the study on the Korean traditional clothing now that overseas examples exist in which other countries' traditional clothing was successfully popularized. In this regard, targeting the children in their preschool ages when their socialization arises along with their physical development that have great influence on their adulthood, this study aims to suggest a design of overcoats that combines the various characteristics of the *po* in Joseon Dynasty period with those of the modern children's overcoats so that they might have positive attitudes towards Korean traditional clothes, and to contribute to its popularization.

The study applied the characteristics of *po* to the design of children's overcoats so that children and their parents could choose to wear them with little repulsion. In this way, it attempted to resolve the inconveniences of the Korean traditional clothes and make the general public have positive perception about them.

It is expected that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the design that combines the Korean traditional clothes and children's clothes will contribute to the popularization of the Korean traditional clothes.

Key Words: Chosun Dynasty(조선시대), Po(포), Girl(여아), Coat(외투), Design(디자인)

I. 서론

한국복식은 우리 민족 고유의 의복으로 타문
화와의 교류, 이민족의 침략 등을 이유로 사라지

Corresponding author ; Min-Jung Chang
Tel. +82-2-920-7195, Fax. +82-2-920-2075
E-mail : chang_mj@sungshin.ac.kr

거나 많은 변화를 거쳐 왔다.

그 중 포(袍)는 고대 사회 때부터 착용하였던 것으로,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영향을 받아 일상적으로 착용하였다. 조선시대의 포는 그 특징을 파악하면 다른 종류의 의복도 분석이 가능할 만큼 시기별 변화가 뚜렷하였고(홍나영, 2008), 시기와 장소, 직분과 신분에 따라 착용하는 포가 달랐던 만큼 그 종류도 다양하였다. 그러나 임진·병자 양란을 거치면서 엄격했던 포제가 완화되었고, 조선 말기 갑신 의제개혁(甲申衣制改革)으로 주의가 포를 대신하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복식에서 포는 두루마기로 단일화 되었다. 하지만 두루마기도 결혼 예복, 명절 외 특별한 행사 때 갖춰 입는 것이 대부분이며 지금은 이마저도 생략되어 우리의 포는 점차 실생활에서 보기 어렵게 되었다.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복진흥센터가 실시한 한복에 대한 인식 설문 조사에 따르면 한복에 대해 ‘단아하다’, ‘멋스럽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실제 착용에 대해서는 ‘직접 입기엔 망설여진다’, ‘불편해 보인다’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호감도에 비해 친근감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반면 일본, 베트남, 중국은 전통복식의 대중화에 성공하였으며 그 요인으로 일상에서 쉽게 착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량을 통한 디자인과 편의성 개선을 들 수 있었다(KCDF, 2012).

따라서 한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개선과 대중화를 위해서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우리 옷의 연구 및 개발이 필요하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인 2-6세 아이들은 신체적 성장 발달이 경험과 연습을 통해 점진적으로 분화하고 정교한 발달을 한다. 또한 언어발달과 더불어 학습, 지각, 추론 및 기억에 상당한 발달적 변화를 통해 타인과의 접촉범위가 넓어지고 관계의 질적, 양적 발달로 사회화(socialization)되는 중요한 시기이다(성영혜 외, 2001). 이에 성인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아동시절부터 한국복식을 다양하게 접하면서 친근감을 쌓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한국복식을 응용한 아동 복식 디자인 관련 선행 연구로는 학령기 아동의 생활한복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나운신, 1999), 한국복식을 응용

한 유치원복 디자인 연구(윤명희, 2009; 김은옥, 2009), 전통 어린이 복식을 응용한 원피스 디자인 연구(김월계, 2010)로, 한국복식을 응용한 성인복 디자인 연구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 또한 한국복식의 조형적 특징을 응용하기 보다는 전통문양, 전통소품 등 한국적인 것을 모티브로 한 아동복 디자인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조선시대 일상복이었던 포의 조형적 특징을 응용해 취학 전 아동, 특히 현대 의류의 종류와 형태가 남아에 비해 다양한 여아가 실생활에서 착용할 수 있는 외투 디자인을 제안함으로써, 한국복식을 응용한 아동복 개발에 도움이 되고, 한국복식의 대중화에 기여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조선시대 포에 대한 고찰

포는 유(襦)와 고(袴)위에 착용하는 긴 외투로, 무릎 아래에서 발목까지 길이의 옷을 말한다(유희경, 1980). 우리 고유의 포제(袍制)는 삼국시대부터 나타난 직령교입형태이며, 좁은 소매에 깃과 옷깃, 수구, 밑단에 다른 색의 천으로 선을 대었다(안명숙, 김용서, 1998). 포는 왕부터 평민까지 남녀모두 착용하였으나 유와 고만큼 기본복식은 아니었고, 의례적인 요소가 함축된 옷이었다(백영자, 최정, 2014).

유교가 통치 이념이었던 조선시대에는 포를 착용하는 것을 예로 여겨, 기본복식이 되었으며, 특히 사대부는 집에서도 포를 착용하였다(이해영, 1989). 또한, 엄격한 신분사회로 품계에 따라 관복제도는 복잡하였지만, 편복에 있어서는 왕, 사대부의 차이가 없었다(안명숙, 김용서, 1998).

조선시대 포제는 임진·병자 양란을 겪으면서 우리 나름의 옷을 형성해 갔다. 단령과 같은 관복은 그대로 고수된 반면, 편복은 고려시대 직령포인 백저포(白紵袍)가 원의 질손(質孫), 조선시대 명의 영향으로 도포, 창의를 거쳐 주의(周衣)에까지 이르렀다(유희경, 김문자, 1998).

포는 깃의 형태, 트임의 유무, 소매의 너비, 상하 구성의 연결 유무에 따라 포의 형태와 명칭,

특징이 분류되었는데(안명숙, 김용서, 1998).

관복포는 대부분 둥근 깃 형태인 단령으로, 왕의 복식인 곤의(袞衣), 곤룡포(袞龍袍), 문무관의 복식인 흑초의(黑綃衣), 적초의(赤綃衣) 및 단령(團領)과 장원에 급제한 관리의 의복인 양삼(鶯衫) 등이 있었으며, 편복포는 곧은 깃 형태인 직령으로, 심의(深衣), 답호(襜褕), 직령(直領), 도포(道袍), 첩릭(帖裏), 창의(幘衣), 액주름(腋皺衣)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였다(류정순, 2010).

포의 소재는 출토복식을 토대로 견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면, 마 순으로 나타났으며, 면과 마는 임진·병자 양란을 전후로 많이 나타났다(조효숙 외, 2003).

포의 색으로는 상고시대 이래 조선 후기까지 소색(消色)이 주를 이루어 왔고, 이는 소재의 본연의 색으로 신분에 상관없이 많이 이용되었다(배리듬, 2014). 상류층의 복식이나 격식을 차릴 때는 유채색도 사용되었는데 흑색(黑色), 백색(白色), 소색(消色), 담청색(淡靑色), 청색(靑色), 갈색(褐靑복色), 홍색(紅色), 자색(紫色), 남색(藍色) 등 이었다(이학순, 2012).

이처럼 조선시대 다양한 포가 존재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 및 제작에 응용되는 첩릭, 액주름, 직령, 대창의, 주의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1) 첩릭

첩릭은 첩리(帖裏), 천익(天翼)이라고도 하며, 고려(高麗) 정석가(鄭石歌)에 ‘털닉’의 기록으로 보아 고려시대에 이미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유희경, 1980). 첩릭은 상의(上衣)와 하상(下裳)이 따로 마름질 된 후 허리에서 이어진 직령교입의 포로, 치마의 허리에 주름을 잡아 활동이 편리하게 하였고(김정은, 임린, 2009), 여기에 품위를 가려 다른 색의 광다회(廣多繪)를 띠었다.(유희경, 김문자, 1998).

첩릭은 편복으로 입을 때는 옷옷으로, 조복(朝服)으로 입을 때는 중의(中衣)로 입었으나 점차 용복(戎服)으로 사용하였다(정혜경, 2000). 한쪽 혹은 양쪽 소매를 반소매로 만들고 따로 긴 소매를 만들어 매듭단추로 연결하였는데, 이는 활을 쏠 때 용이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왼쪽 소매가

탈착형이며, 떼어낸 소매는 봉대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이은주 외, 2005).

첩릭의 재료는 주(紬), 저포(苧布), 마포(麻布), 면포, 사(紗), 능(綾), 단(緞)을 사용하였고 만드는 방법에 따라 홀첩릭, 겹첩릭, 누비첩릭, 솜첩릭 등이 있었다(김지혜, 최정옥, 2008).

첩릭의 색은 속대전(續大典)에서 ‘당상관(堂上官)은 남색(藍色), 당하관(堂下官)은 청현색(靑玄色), 왕이 타는 수레가 교외로 나갈 때는 홍색첩리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김주영, 2003), 후기에는 여러 가지 색으로 일정하지 않았다(안명숙, 김용서, 1998).

첩릭은 시대에 따라 의와 상의 길이와 폭, 주름의 처리 방법, 깃·소매 등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이학순, 2012). 특히 허리 연결선의 비율이 첩릭의 시대를 판별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의와 상의 비율을 보면 조선 초기에는 1.2:1 정도지만, 16세기 중후반에는 비슷해지며, 임진왜란 이후에는 1:1.4의 비율을 보인다. 17세기 말에는 1:1.7-1:2 정도의 비율을 보이며, 점차 길어져 18세기 후반엔 1:2.3,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는 1:3.6의 비율로 상의 길이가 점차 길어진다(홍나영, 2008). 상의 주름은 초기에는 잔주름이었으나 후기로 갈수록 미세주름, 넓은 주름, 맞주름, 눌러준 주름 등이 나타난다(양승옥, 2001). 또한 후기로 갈수록 소매가 넓어지고 두리소매로 변해가는 형태를 보이며, 배래에 곡선이 생긴다(류희경 외, 2009).

2) 액주름

액주름은 문헌상에서 액추의(腋皺衣), 방첩아(榜첩兒), 액주름(腋注音)으로 나타난다(이경희, 2003). 액주름의 겨드랑이 밑에 주름이 잡혀져 있는 옷으로, 길과 길이 의와 상으로 분리되지 않고 옆에 달린 무만 따로 주름잡아 겨드랑이 밑에서 연결한 부분적인 의상연의(衣裳聯衣)이다(유승옥, 1998).

저고리보다는 길고 포 종류보다는 약간 짧아서 허벅지 정도 오는 길이이며, 문헌상으로는 임진왜란 이전 시기까지 보이나 17세기 초반까지의 유물도 확인되어 임진왜란 직후까지는 착용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옛길박물관, 2010). 액

주름은 포 중에서 가장 속에 입던 것으로(단국대학교석주선기념박물관, 2009), 의궤(儀軌)와 같은 왕실 기록에서는 조선 말기까지 왕이나 왕세자의 흰색 속옷 종류로 기록되었다(옛길박물관, 2010). 또한, 신분이 낮은 자들은 관복으로도 입었다(유송옥, 1998).

액주름의 소재로는 명주(明紬), 토주(吐紬), 목면(木棉), 저포(苧布), 공단(貢緞) 등 이고 홉, 겹, 솜, 누비의 구성방법이 모두 보인다(이경희, 2003).

액주름의 색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서 아청색, 초록색, 금황색,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와 국혼정례(國婚定例)에서 백색과 자적색이 보이며, 출토복식 갈변 상태의 시각으로 확인한 색상으로 소색, 상색, 아청색, 연갈색, 두록색이 있다(김은정 외, 2011).

액주름은 겹깃은 칼깃, 안깃은 목판깃 형태이고, 소매는 진동과 소매통 너비의 차이가 거의 없는 통수형이다. 진동아래에는 작은 사각접은 삼각형무와 사다리꼴형무가 붙어 있으며 그 아래로는 큰 무가 길 아래까지 달려 있고, 큰 무의 윗부분에 주름을 주었다. 이러한 형태를 기본으로 하여 시대적으로 각 부분에 약간씩 차이를 보이면서 변화된다(이황조, 2006).

3) 직령

직령은 끈은 깃을 의미하는 단령의 상대어로서 양식을 뜻하거나, 독립된 하나의 포제를 지칭하는 용어이다(이주영, 권영숙, 2003).

깃을 제외하고 단령과 같은 형태로,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 사대부의 간편한 출입복식 및 생활복식, 무관직자의 의례복식, 관리의 신분복식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단령의 밑받침 옷이기도 하였다(홍나영, 2008). 조선 후기 도포가 널리 확산되면서부터는 중인계급이 관복으로 착용되는 정도로 착용이 줄어들었고(류희경 외, 2009), 이후 고종 21년(1884) 갑신외제개혁 때 다른 광수의와 함께 착수의, 전복, 사대로 대체되면서 직령의 제도가 폐지되었으나, 순종은 세자 때 관례복(冠禮服)으로 착용하기도 하였다(고복남, 1984).

직령의 소재는 임진왜란이 이전에는 면, 마, 평견을 주로 사용하였으나 단령의 받침옷이 되

면서 단령과 같은 소재의 고급직물이 사용되었다(조효숙 외, 2003).

직령의 색은 백색, 홍색, 아청색이 사용되었고, 사대부들은 특히 홍직령을 많이 입었다(안명숙, 김용서, 1998).

직령은 깃, 소매, 무가 시대별로 변화하였다(홍나영, 2008).

조선 초기 직령 깃의 형태는 목판깃이고, 중기에는 칼깃으로 변화되었다가 조후기에는 완만한 현대의 두루마기 깃으로 변화하였다(김미자, 1981). 소매의 형태 역시 깃과 함께 변화하였는데 조선 초기엔 배래가 진동과 동일한 통수형이었다가 16세기 후반에 배래선이 진동선 아래로 내려오지만 진동선이 파이지 않는 콩깍지형으로 변화하였다. 17세기 전반엔 다시 배래가 진동보다 넓은 두리소매형이 되었고 이로 단일화 되었다고 본다(최은수, 2003).

또한 직령의 무는 조형적 형태에 따라 사다리꼴형, 삼각형, 직사각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김신애, 2014), 옆자락의 유무와 옆자락의 위치에 따라 안주름형, 안팎주름형, 밖주름형, 뒷깃형, 옆막힘형, 옆트임형 등으로 나뉜다(이영주, 권영숙, 2003).

4) 창의

창의는 새의 깃털 모양으로 갈라져서 속이 드러나며, 트임이 있어 속이 보이는 포의 총칭이다(이경희, 2013). 도포와 주의의 중간 형태로 옷의 트임을 강조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창옷이라고도 한다(유희경, 1980).

임진왜란 이후에 나타났으며, 다른 포에 비해 출토 복식의 수가 많은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에 즐겨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김신애, 2014). 사대부가 편복으로는 주로 흰색을 사용하여 겹옷으로 입었고, 공복으로는 청색 중의(中衣)로 착용하였으며, 서민층에서는 겹옷으로 입었다(김정은, 임린, 2009). 창의의 종류에는 대창의, 중치막, 학창의, 소창의가 있으며, 소매의 너비, 트임의 유무, 장식선의 유무 등의 기준으로 구별된다(홍나영, 2008). 그 중 대창의는 일반적으로 앞 두자락, 뒷술기가 갈라진 뒤 두자락, 총 네 자락으로 된 옷으로 큰 창옷이라고도 한다. 옆선에

〈표 1〉 포의 형태

	철릭	액주름	직령	대창의	주의
포	 <p>(출처: 17세기 조선 무관의 옷과 차림새(p.10)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2006, 서울: 민속원)</p>	 <p>(출처: 조선 왕실 선성군 모자의 특별한 외출(p.88), 경기도박물관, 2014, 서울: 민속원)</p>	 <p>(출처: 심수륜묘출토복 (p.15) 경기도박물관, 2004, 경기: 경기도박물관)</p>	 <p>(출처: 17세기 조선 무관의 옷과 차림새(p.12)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2006, 서울: 민속원)</p>	 <p>(출처: 유당 신태관일가유물 (p.124),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14, 경기: 단국대학교 출판부)</p>

큰 삼각형의무가 부착되어 있으며, 광수이고 많은 색들이 제도를 벗어나 자유로이 선택하여 사용되기도 하였다.

사대부가 간단한 출입 시 도포대신 착용하였으나, 조선 말기 의제개혁 때 다른 소매 넓은 옷과 함께 착용이 금지 되었다(류희경 외, 2009). 조선 시대 후기의 대창의와 말기의 대창의는 중기의 대창의보다 소매가 조금 넓어진 것을 제외하고 형태가 동일하며 시대별 변화는 거의 없다(김신애, 2014).

5) 주의

周는 두루 주, 衣는 옷의 의 뜻으로 사방이 두루 막혀있다는 뜻에서 나온 말로 주차의(周遮衣) 또는 주막의(周莫衣), 두루마기라고도 하였다. 두루마기는 1896년 독립신문기사에 두루마기 용어가 등장하며 1925년 최초의 재봉서적인 조선 재봉전서(朝鮮裁縫全書)에는 ‘두루막이’라고 기록되었다(이경은, 2014).

주의의 형태는 삼국시대 기본 포의 형태에서 통일신라 무렵 무가 생기고 목판같이 되었으며, 고려 말기에 쇠의 여밈이 깊어지고 옷고름이 생겨 현대의 두루마기 형태가 갖추어 졌다(이경희, 2013). 창의를 비슷하나 소매를 좁게 하고 양옆에 무를 달아 손을 넣을 수 있는 옆트기만을 남기고 나머지를 막은 것이 다르다(안명숙, 김용서, 1998). 남성용 주의의 경우 양반 이상의 계층에서는 겹옷의 반침옷으로 입고 서민층에서는 겹옷으로 입었으며(이경민, 2005), 조선 말기 의제개혁에 따라 통상복으로 주의와 답호를 입게 하였고, 다음해에는 답호를 없애고 주의만을 입

게 하여 포제가 주의 일색이 되었다. 1895년 이후에는 신분의 높고 낮음,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두루 착용하게 되었으며, 한일강제병합 이후에는 양복에 있어서의 외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다(김정은, 임린, 2009).

주의의 소재로는 계절에 따 베(布)와 단(緞), 궁초(宮綃), 사(紗), 룡(綾), 증(縵), 명주(紬), 토산명주(土産紬), 면주(綿紬)등이 사용되었고, 겨울에는 솜을 넣거나 누비로 만들기도 했다. 색은 남색(藍)과 연한 남색(軟藍)그리고 검정색(黑), 자적색(紫的)의 사용이 추정된다(유송옥, 1998).

순조 30년(1830)과 고종21년(1846)에 광수 주의의 비판적 기록도 있는 것으로 보아 의제개혁 전까지 광수 주의가 착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이경은, 2014).

앞서 설명한 포의 형태는 〈표 1〉과 같다.

2. 현대 아동복에 대한 고찰

1) 아동복의 개념 및 특성

아동의 발달은 특징에 따라 여러 단계로 나누어진다. 단계적으로 구분된다하여도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고, 두 단계 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자마다, 이론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김신옥 외, 2014).

진 생애를 발달심리학을 바탕으로 분류한 Hurlock에 따르면 아동기는 2세에서 11세의 아동이 해당되며 아동전기(2-6세)와 아동 후기(6-11세)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아동전기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이전의 시기로 학령전기라고도 하는데, 주변 환경에 대

한 왕성한 호기심이 발달하여 탐색하고 적응하려 하며, 성격 형성이 되어 성인이 될 때까지 유지되는 시기이다(김경희, 1986). 신체 성장이 진행되면서 신체 비율도 변하게 되는데 머리 성장 속도보다 팔과 다리의 성장 속도가 빨라 길이의 성장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5-6세가 되면 배가 들어가고 허리선이 생겨 이전 시기와는 다른 형태의 의복을 입어야 하므로 의복이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독립성의 개발, 자아 개념의 형성, 사회성의 발달 등의 정서적 발달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이은영, 1983).

또한 Ryan는 이 시기의 아동은 성인에 비해 자기의 지각이 결핍되어 있어 자기 자신과 의복을 동일시하고 의복을 자신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의복은 아동행동에 뚜렷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고, Hartman는 취학 전 아동에게 있어 의복은 자기개념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한 인간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가능성을 개발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이인자 외, 2001).

아동복의 사전적 의미는 유아부터 중학생 정도까지의 어린이가 입는 옷의 총칭으로, 각각의 발달 단계에 맞게 고안된 옷이다(패션전문자료사전 편찬위원회, 1997).

특히 아동전기는 신체성장에 있어서 체형이 변하는 시기로 신체 비율이 성인에 가까워지면서 살이 빠지고 허리선이 들어가고(이인자 외, 2001), 성장의 속도가 빨라, 의복의 시접 여유분을 충분히 두어 성장에 따라 적절히 늘이거나 고쳐 입을 수 있어야 한다(이경아, 2004). 트임은 앞으로 하되 충분히 길게 하여 착용을 쉽게 하고, 여밈은 지퍼가 가장 쉬우며, 단추를 사용할 경우에는 단추의 크기가 적어도 1.5-2cm는 되어야 한다. 뒤트임은 입고 벗는 데 어른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피하도록 하고, 디자인은 간단한 스타일로 칼라가 없는 것이 입기 쉬우며, 바지나 스커트는 허리에 고무줄을 넓게 박은 것이 허리밴드와 지퍼가 있는 것 보다 혼자 입기 쉽다(이은영, 1983).

의복의 소재는 이 시기의 아이들이 의복을 인식하는데 있어 촉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동에게 만족감 혹은 불쾌감 주기도 한다. 또한 의복의 재질은 아동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활동하기에 편한

부드러운 질감의 천을 선호하며, 질감의 선호성은 인성과도 연관이 있어, 통찰력이 높은 아동일수록 부드러운 재질을 선호한다(이인자 외, 2001).

아동은 색에 대한 관심이 높아 의복 선택 시 재질이나 모양보다는 색에 의한 선택을 많이 하고, 자신이 선호하는 색의 옷을 입을 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된다. 아동은 빨강, 주황, 분홍, 노랑과 같은 밝고 따뜻하며 화려한 원색계통의 색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색은 빨강과 파랑이다(김선경, 2011). 하지만 아동복 대부분의 구매자가 어머니임을 감안할 때 실제 구매에서는 아동보다도 어머니의 선호도가 반영된다고 할 수 있다(김영인 외, 1999).

2) 현대 여아 외투 디자인

여아 외투 디자인을 하기 앞서, 현재 출시되고 있는 여아 외투의 디자인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 백화점에 입점된 국내외 아동복 브랜드의 2014 F/W, 2015 S/S 출시 외투를 살펴보았다. 지점 수가 상위인 세 백화점에 입점된 아동복 브랜드 중 학령전기 아동의 사이즈가 있는 브랜드를 선택하여 공식 홈페이지나 공식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사진을 통해 소재, 색상 디자인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2014 F/W에는 패딩점퍼, 코트, 트렌치코트, 2015 S/S에서는 트렌치코트, 바람막이용 점퍼, 자켓 등이 출시되었다. 두 시즌의 공통점으로는 간절기에 급격한 기온변화로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외투가 다양하게 출시된 것이다.

소재는 면이 가장 많았으며 폴리에스테르, 모, 마도 볼 수 있었다.

색상은 검정, 남색, 회색, 파랑, 빨강, 분홍, 갈색, 베이지, 흰색, 카키색 등으로 아동복이라고 해서 원색적인 색상보다는 모노톤의 색상이 더 많았고, 수입브랜드의 경우 디자인, 색상 및 소재가 성인복과 거의 비슷하거나 동일하게 출시된 상품도 있었다.

여아 외투 디자인의 형태는 <표 2>와 같이 크게 트렌치코트 스타일, 점퍼 스타일, 자켓 스타일로 나눌 수 있었으며, 스타일별로, 브랜드별로 중복되는 요소가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쓰인 각 제품의 이름은 공식홈페이지나 공식 쇼핑

〈표 2〉 현대 여아 외투의 디자인

외투 형태	외투			특징
점퍼 스타일	 (출처: 밍크뮤 점퍼 (2015.03.28)서양네트웍스. (http://www.suhyangmail.com))	 (출처: 자라 키즈 파카 (2015.02.22)자라. (http://www.zara.com))	 (출처: 프렌치캐트 트렌치코트(2015.03.05) 퍼스터어패럴 (http://www.firstkid.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앞트임 •뒷트임
트렌치코트 스타일	 (출처: 버버리 칠드런 트렌치코트(2015.2.9) 버버리. (http://kr.burberry.com))	 (출처: 아르마니주니어 코트(2015.3.27.) 아르마니. (http://www.armani.com/kr))	 (출처: 랄프로렌 칠드런 트렌치코트 (2015.03.27.) 랄프로렌. (http://www.ralplhlauren.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하 따로 재단 후 연결 •허리선 주름 •허리장식으로 벨트, 스트링 사용
자켓 스타일	 (출처: 버버리 칠드런 자켓(2015.02.15.)버버리. (http://kr.burberry.com))		 (출처: 빈폴 키즈 점퍼(2015.02.15) 빈폴. (http://www.beanpole.c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매나 팔, 여밈, 주머니 등이 전체색과 대비되는 색

몰의 제품명을 사용한 것으로, 여기서 분류한 것과 다를 수 있다.

트렌치코트 스타일은 가장 많았던 스타일로 모든 브랜드에서 볼 수 있었다. 버버리 칠드런 트렌치코트, 아르마니 주니어 코트, 랄프로렌 칠드런 트렌치코트와 같이 상,하를 따로 마름질 하여 연결하였고, 허리선에 주름이 있으며, 벨트나 스트링으로 장식한 것이 많았다. 점퍼스타일 또한 모든 브랜드에서 볼 수 있었고, 트렌치코트 스타일 다음으로 많았는데 밍크뮤 점퍼, 자라 키즈 점퍼와 같이 옆이나 뒤에 트임을 준 것이 많았으며, 자켓 스타일은 외 소매나 팔, 여밈, 주머니 등을 투 전체색과 대비되는 색으로 디자인된 외투로 모든 브랜드에서 보여 지는 것은 아니었다.

또한 허리벨트가 있는 트렌치코트 스타일에

해당하면서 옆트임이 있어 점퍼 스타일 요소가 있는 프렌치캐트 트렌치코트나, 자켓스타일이면서 상하를 따로 재단해서 연결한 트렌치코트 스타일 요소가 있는 빈폴 키즈 점퍼처럼 두 가지 스타일에 해당하는 제품도 있었다.

그 외, 브랜드별로 겹치는 부분은 없지만 기본 블레이저, 라이더 자켓, 화려한 무늬의 코트나 점퍼 등이 있었다.

정리해보면 아동복 브랜드 별 2014 F/W, 2015 S/S의 외투에서 주로 보여 지는 디자인은 주름, 트임, 반대배색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특징들이 모든 브랜드에서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보이며 다른 스타일에 접목되어 디자인되기도 하였다.

Ⅲ. 여아 외투 디자인 및 제작

1. 디자인 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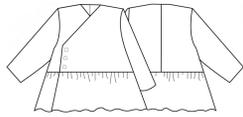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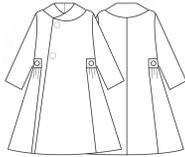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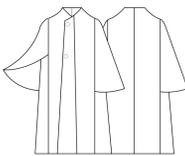
앞서 알아본 결과, 조선시대 포는 주로 남성의 편복포이며, 포마다 각각의 특색이 있었고, 현재 여아 외투 디자인은 브랜드마다 공통적인 디자인적 요소가 있었다. 따라서 여아 외투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 조선시대 포의 특징을 바탕으로 현대 아동복 외투 디자인에서 보였던 주름, 트임,

반대배색을 참고하여 표현하고자 하였다.

제작 대상의 연령은 학령전기 아동에 해당하며, 체형변화가 나타나 다른 형태의 의복이 필요하고, 의복으로 인해 독립성, 자아 개념, 사회성 형성에 영향을 받는 시기인 5-6세 여아용 외투 5별로 구성하였다.

응용한 포와 그 특징으로는 직령의 무, 철릭의 상의하상과 주름, 액주름의 주름과 사다리꼴 무, 대창의의 무를 이용한 넓은 폭과 소매, 두루마기의 쏠과 무이고, 포의 여밈 방향인 우임을 공통

〈표 3〉 디자인 기획

No.	응용 포	모티브	소재	색상	디자인
작품 I	 <p>(출처: 정사공신 신경유공 출토복식(p.36), 단국대학교석주선기념 박물관, 2008, 단국대학교출판부)</p>	직령의 무	면	남색	
작품 II	 <p>(출처: 문화재대관(p.358), 문화재청, 2006, 대전:문화재청 문화재과)</p>	철릭의 상의하상, 주름	폴리에스테르	분홍	
작품 III	 <p>(출처: 조선 왕실 선성군 모자의 특별한 외출(p.88), 경기도박물관, 2014, 서울:민속원)</p>	액주름의 사다리꼴무	면	민트	
작품 IV	 <p>(출처: 17세기 조선 무관의 차림새(p.14),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2006, 서울:민속원)</p>	대창의 소매, 무	모	열은 갈색	
작품 V	 <p>(출처: 유당 신태관일기유물(p.124),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박물관, 2014, 경기: 단국대학교 출판부)</p>	주의의 쏠, 무	모	회색	

으로 적용하였다.

외투의 소재는 각 계절에 맞게 외투에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선택하였으며, 색상 역시 현대 아동복 외투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회색, 분홍, 갈색, 녹색계열을 이용하였다. 여밈에는 아동 스스로 쉽게 착용할 수 있도록 외투 안쪽에 스냅 단추를 달았다. 이와 같이 작품을 기획한 것은 <표 3>과 같다.

2. 외투 제작

1) 작품 I

작품 I 은 직령의 사다리꼴형, 뒷길고정형 무를 응용하여 장식한 트렌치코트이다. 원래 무는 착

용 시 움직임이 편하게 하기 위해 덧댄 천이었지만, 여기서는 장식적 요소로 사용하였다.

무릎 길이의 A라인 코트이며 깃은 따로 달지 않고 깃의 높이보다 낮게 길에서 연결하였다. 무는 양쪽 각각 두 자락으로 허리 높이의 옆선에 달리며 뒤에서 고정되고, 무의 끝에 끈을 달아 리본처럼 묶을 수 있게 하였다.

소재는 트렌치코트에 많이 쓰이는 면직물을 사용하였으며, 색상은 남색을 사용하였다. 여밈 단추의 색상은 베이지색을 사용하여 남색과 대비효과를 주었다.

2) 작품 II

작품 II 은 철릭을 응용한 상의하상 스타일 홀바람막이 접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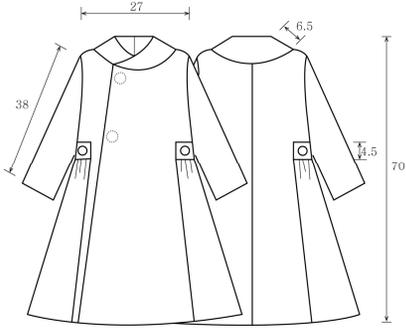
<표 4> 작품 I 작업지시서

작품 I	도식화	작품 사진	소재 및 부자재						
			<table border="1"> <tr> <td>깃감</td> <td> 면 100% </td> </tr> <tr> <td>안감</td> <td> 폴리에스테르 100% </td> </tr> <tr> <td>부자재</td> <td> 단추-23mm 4개 스냅단추-23mm 4개 </td> </tr> </table>	깃감	 면 100%	안감	 폴리에스테르 100%	부자재	단추-23mm 4개 스냅단추-23mm 4개
깃감	 면 100%								
안감	 폴리에스테르 100%								
부자재	단추-23mm 4개 스냅단추-23mm 4개								

<표 5> 작품 II 작업지시서

작품 II	도식화	작품 사진	소재 및 부자재				
			<table border="1"> <tr> <td>깃감</td> <td> 폴리에스테르 100% </td> </tr> <tr> <td>부자재</td> <td> 스냅단추 13mm 3개 </td> </tr> </table>	깃감	 폴리에스테르 100%	부자재	스냅단추 13mm 3개
깃감	 폴리에스테르 100%						
부자재	스냅단추 13mm 3개						

〈표 6〉 작품Ⅲ 작업지시서

작품Ⅲ	도식화	작품 사진	소재 및 부자재	
			겉감	 면 100%
			안감	 폴리에스테르 100%
			부자재	단추-25mm 4개 스냅단추-23mm 4개

철릭은 용복으로 입었던 만큼 활동성이 강한 바람막이 점퍼디자인에 적용하였다. 점퍼의 길이는 엉덩이를 덮는 길이로, 상의와 치마의 비율은 약 2:1이며, 치마에 1cm 간격으로 주름을 잡아 퍼지되, 치마부분은 여밈 고정 없이 움직일 때 치마의 풍성함이 더욱 강조될 수 있도록 하였다.

치마의 비율을 짧게 하고, 소매의 배래도 곡선으로 하여 학령전기 아동의 발달함을 표현하였다.

또한 바람막이 점퍼의 간편함과 활동성을 고려하여 칼라가 없는 v-neck으로 디자인하였고, 상의에만 스냅 단추를 부착하여 아동이 간단히 입고 벗을 수 있도록 하였다.

소재는 바람막이 점퍼에 많이 쓰이는 폴리에스테르를 사용하였으며, 색상은 여아의 발달함을 나타내고자 분홍색을 사용하였다.

3) 작품Ⅲ

작품Ⅲ은 액주름의 겨드랑이 밑 주름과 사다리꼴 무릎 응용한 트렌치코트이다.

액주름의 실루엣이 원피스처럼 보이는 것에서 착안하여 원피스형 트렌치코트로 디자인하였다.

옆선에 무릎 달아 주름을 잡고, 주름 부분을 사다리꼴 무릎 변형한 조각을 대 장식하였다. 사다리꼴 무릎은 앞과 뒤에서 모두 볼 수 있으며, 각각 단추를 달아 무릎 고정하는 동시에 장식 효과도 주었다. 칼라는 칼깃을 응용한 플랫폼칼라로 여

밈선이 사선이고, 스냅 단추를 달아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여밈을 잠그면 칼라가 둥글게 모여 칼깃이 돋보이고, 주름 잡은 무가 살짝 퍼지면서 원피스처럼 보일 수 있도록 하였다.

소재는 트렌치코트에 많이 쓰이는 면직물이며, 색상은 초록계열 가운데 봄·가을에 모두 입을 수 있도록 민트색을 사용하였다.

4) 작품Ⅳ

작품Ⅳ는 대창의처럼 무릎 더해 폭을 확장시키고 수구를 넓게 디자인한 코트이다. 무릎 위 길이의 코트로 폭이 커서 움직일 때 생길 수 있는 불편함을 없애고자 옆과 뒤에 트임을 주었다. 깃은 따로 달지 않고 깃의 높이보다 낮게 길에서 연결되게 제작하여 목이 불편하지 않게 하였다. 깃 밑 부분을 5cm 사각형 형태로 잘라 깃처럼 보이게 하면서도 이 코트만의 독특함을 주고자 하였다. 여기에 단추로 장식하였는데 2개는 겉 단추이고, 2개는 안쪽의 스냅 단추이다. 겉단추 2개 중 1개는 우측 길에, 1개는 좌측 길에 달려 우측 길에 달린 단추는 실제 여밈을 잠그는 단추이고, 좌측에 달린 단추는 깃 밑에 사각형 형태로 잘린 부분 사이로 보이는 장식용 단추이다.

소재와 색상은 겨울 코트에 많이 쓰이는 모직물이며 옅은 갈색을 사용하였다.

〈표 7〉 작품Ⅳ 작업지시서

작품Ⅳ	도식화	작품 사진	소재 및 부자재						
			<table border="1"> <tr> <td>겉감</td> <td> 모 90% 나일론 10% </td> </tr> <tr> <td>안감</td> <td> 폴리에스테르 100% </td> </tr> <tr> <td>부자재</td> <td> 단추-23mm 2개 스냅단추 -18mm 2개 </td> </tr> </table>	겉감	 모 90% 나일론 10%	안감	 폴리에스테르 100%	부자재	단추-23mm 2개 스냅단추 -18mm 2개
겉감	 모 90% 나일론 10%								
안감	 폴리에스테르 100%								
부자재	단추-23mm 2개 스냅단추 -18mm 2개								

〈표 8〉 작품Ⅴ 작업지시서

작품Ⅴ	도식화	작품 사진	소재 및 부자재						
			<table border="1"> <tr> <td>겉감</td> <td> 모 90% 나일론 10% </td> </tr> <tr> <td>안감</td> <td> 폴리에스테르 100% </td> </tr> <tr> <td>부자재</td> <td> 스냅단추 18mm 2개 </td> </tr> </table>	겉감	 모 90% 나일론 10%	안감	 폴리에스테르 100%	부자재	스냅단추 18mm 2개
겉감	 모 90% 나일론 10%								
안감	 폴리에스테르 100%								
부자재	스냅단추 18mm 2개								

5) 작품Ⅴ

작품Ⅴ는 트임이 없이 설피 무를 달아 주의처럼 디자인한 코트이다. 이는 주의의 구성이 막혀 있고, 우리가 입는 현대의 외투 역시 모두 막혀 있다는데 착안하여 설피 무를 더한 형태의 외투를 제작하고자 하였다.

A라인 실루엣의 무릎길이 코트이며, 길과 무에 트임이 없어 답답해 보일 수 있으므로 소매

부분은 케이프 스타일로 디자인하여 트임을 주었다. 무의 윗부분에 암홀을 만들고 그 위에 케이프 소매를 다는데 소매의 앞과 뒤는 각각 무의 연결선에 같이 넣어 박았다. 이때 앞 소매는 암홀까지만 박는다. 또한, 겉설피 안쪽에 2개의 스냅 단추를 달아 아동이 여밈을 쉽게 여달 수 있도록 하였다,

소재와 색상은 겨울 코트에 많이 이용되는 회색 모직물을 사용하였다.

V. 결 론

유교를 숭상하는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시대에는 다양한 포가 발달하였다. 그러나 조선 말기의제개혁을 통해 주의로 정리되면서 현재 한국복식의 대표적인 포는 두루마기이고, 불편하다는 인식으로 점차 착용되지 않는 의복이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전통복식을 대중화에 성공한 외국의 사례가 있는 만큼 연구를 통한 디자인 개발과 편의성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신체, 지능, 언어, 인지가 급속히 발달하고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학령전기 아동에게 한국복식의 특징을 살린 현대 아동복을 입힘으로써 어렸을 때부터 우리 옷에 대한 친밀함을 주고자 하였다.

하지만 한국복식을 응용한 아동복 연구는 성인복 연구에 비해 매우 적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조선시대 일상복중 하나인 포의 특징을 학령전기 여아 외투에 적용하였다. 디자인에 앞서 조선시대 포의 종류 및 조형적 특징을 알아보고, 아동복의 보편적 특성과 현대 아동 외투의 디자인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한국 복식의 특징을 가지면서 실생활에서도 쉽게 선택 할 수 있는 5별의 여아용 외투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작품 I 은 직령의 무를 응용한 트렌치코트로 사다리꼴형·뒤틀고정형무를 장식적으로 활용하였으며, 무에 달린 끈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연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작품 II 는 철릭을 응용한 바람막이 점퍼이다. 상의하상 스타일이며, 비율이 짧은 치마에 주름으로 풍성함을 더하였고, 소매의 배래도 곡선으로 하여 발랄하고 귀여운 느낌을 주었다.

작품 III 은 액주름의 주름과 사다리꼴 무를 응용한 트렌치코트로 여밈을 잠그면 칼라가 둥글게 모여지고, 주름 잡은 무가 살짝 퍼지면서 원피스처럼 보일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작품 IV 는 대창의의 넓은 폭과 소매를 응용한 모직 코트로 무를 더해 폭을 확장시키고 수구를 넓게 하였다. 폭이 커서 움직일 때 생길 수 있는 불편함을 없애고자 옆과 뒤에 트임을 주었다.

작품 V 은 주의의 쉼과 무를 응용한 모직 코트이다. 주의는 일반적인 코트와 같이 막힌 형태이므로 쉼과 무를 더하고, 팔 부분엔 케이프를 달

아 차별화하였다.

조선시대 포들 각각의 특색을 외투 디자인에 더하고, 현대 아동 외투에 주로 사용되는 소재, 색을 사용함으로써 아동이나 부모가 거부감 없이 외투를 선택하여 입을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이로서 한국 복식의 불편함에 대한 불만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긍정적이며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앞으로도 한국복식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뿐 아니라 한국복식을 응용한 다양한 연령의 아동복 디자인 개발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나아가 한국복식의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복남. (1984). *한국 전통 복식사 연구*. 서울: 일조각.
- 김경희. (1986). *아동심리학*. 서울: 박영사.
- 김미자. (1981). 직령에 관한 연구. *복식*, 5(0), 219-235.
- 김신경. (2011). *키네틱 아트의 조형성을 응용한 아동복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신애. (2014). *조선시대 남자 포에 나타난 무의 형태변화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신옥, 민혜영, 이혜란, 홍길희. (2014). *유아발달의 이해*. 서울: 창지사.
- 김영인, 추선형, 조민정. (1999). 아동복 색채선호에 대한 조사연구. *복식*, 42(0), 59-68.
- 김은정, 김초영, 이미숙. (2011). 사극 드라마 <추노>에 나타난 액주름 연구. *남도민속연구*, 23, 89-112.
- 김정은, 임린. (2009). *역사속의 우리옷 변천사*. 광주: 전남대학교출판부.
- 김주영. (2003). *조선시대 철릭의 피륙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혜, 최정옥. (2008). 철릭의 디자인 현대화에 관한 연구. *한복문화*, 11(3), 95-109.
- 단국대학교석주선기념박물관. (2009). *해남윤씨 굴정공파 광주출토 유물*. 경기:단국대학교출판부.
- 류정순. (2010). 근세 한일 남자 포의 조형적 특성 비교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류희경, 김미자, 조효순, 박민여, 신혜순, 김영재, 최

- 은수. (2009). *우리 옷 이천년*. 서울: 미술문화.
- 배리듬. (2014). *조선시대 포를 응용한 대학 학위예복 디자인 개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영자, 최정. (2014). *한국복식문화의 흐름*. 서울: 경춘사.
- 성영혜, 김광웅, 이재연, 서영숙, 이소희. (2001). *아동심리학*.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출판국.
- 안명숙, 김용서. (1998). *한국복식사*. 서울: 예학사.
- 양승옥. (2001). *패션 한복의 디자인을 위한 철학의 비교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옛길박물관. (2010). *중치막 자락에 깃든 사연*. 서울: 민속원.
- 유송옥. (1998). *한국복식사*. 서울: 수학사.
- 유희경. (1980). *한국복식사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유희경, 김문자. (1998). *한국복식문화사*. 서울: 경춘사.
- 이경민. (2005). *주의 보편화의 과정과 요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아. (2004). *유·아동복 이벤트 드레스 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은. (2014). *두루마기 구성의 변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희. (2003). *조선시대 액주름포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영. (1983). *복식의장학*. 서울: 교문사.
- 이은주, 조효숙, 하명은. (2005). *길짐승흉배와 함께 하는 17세기의 무관 옷 이야기*. 서울: 민속원.
- 이인자, 이경희, 신호정. (2001). *의상심리*. 서울: 교문사.
- 이주영, 권영숙. (2003). *조선시대 직령의 유형과 특성*. *복식*, 53(6), 25-43.
- 이학순. (2012). *편복포의 모더니즘적 접근을 통한 여성복 개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해영. (1989). *한국 직령교임식 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황조. (2006). *조선시대 액주름의 조형적 특징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혜경. (2000). *조선시대 철릭과 남자 포류와의 상호관계*. *한국의류학회지*, 24(2), 226-236.
- 조효숙, 임경화, 김지연. (2003). *조선시대 출토복식 중 포류에 사용된 직물유형 연구*. *복식*, 53(4), 113-129.
- 최은수. (2004). *조선시대 백관의 단령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패션전문자료사전 편찬위원회. (1997). *FASHION전문자료사전*. 서울: 한국사전연구사.
- 홍나영. (2008). *출토복식을 통해서 본 조선시대 남자 편복포의 시대구분*. *복식*, 58(5), 118-133.
- KCDF. (2012). *한복진흥센터 설립 기본계획연구*. 서울: KCDF.